

‘블루오션’ 다도해 <13>

3부 전남도 선정 ‘가고 싶은 섬’

④ 완도 소안도

▼소안도 주민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건립한 높이 8m의 독립운동기념탑과 섬 곳곳에 자생하고 있는 노랑무궁화.

▲▲‘태극기의 섬 소안도’ 주민들이 지난 1일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재연하고 있다.
▲소안도에서 개매기체험을 즐기고 있는 관광객들.

항일운동 성지·8대 비경·관광자원 가득한 ‘스타 섬’

독립운동가 88명 배출...2012년 ‘태극기 시범마을’

섬 전체 국립공원 지정...상록수림·해수욕장 등 유명

개매기 체험·해녀 물질·바다낚시...관광자원도 풍부

가족·청소년 등에 ‘태극기 섬’ 어필...사업성공 관건



소안항일운동기념관에 모셔진 독립유공자들의 부조상.

28.2㎢의 면적에 2794명이 거주하는 소안도는 완도군청 소재지로부터 남서쪽으로 17.8km 아래에 자리한 꽤 큰 섬이다. 광주의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은 서구(47.78㎢)의 5분의 3 정도로, 법정리 8개 행정리 15개가 있다. 해안선이 65.43km로 완도군 전체의 7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완도에서 노화도를 거쳐 소안도로 오는 여객선이 하루 11차례 오가고 있다.

지난 2002년 조사에서 소안도의 인구가 3514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여년 간 360명이 물으로 나간 셈이다. 359m의 가학산과 335.4m의 대봉산이 각각 남북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.

국가어항 소안항, 지방어항 미라항·진산항 등을 갖추고 있고, 선착장이 30여 곳에 있는 등 기반시설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.

◇항일, 자연경관, 주민공동체 등 최적의 조건=대도시에서 멀다는 것을 제외하면 소안도는 ‘스타’ 섬으로써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우선 ‘역사성’이다. 일제강점기 소안도 농민들이 소작쟁취와 소송을 통해 일제로부터 농지를 돌려받는 등 소안도는 88명에 이르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. 함경도 북청,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3대 성지 중 하나로 소안항일운동기념관, 독립운동기념탑 등 소안항일운동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다.

소안도 주민들이 1990년 직접 성금을 모아 높이 8m의 기념탑을 건립할 정도로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다. 2005년에는 일제강점기 주민들이 직접 지은 소안학교 교사를 복원하기도 했다. 1920년대 6000여명의 주민 중 800명 이상이 일제에 의해 불령선인(不逞鮮人,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사람)으로 낙인찍혔던 해방의 섬 소안도가 지난 2012년 태극기 시범

마을로 지정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.

장구형의 섬으로, 1981년 섬 전체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안도는 천연기념물 제339호와 제340호로 지정된 미라리·맹선리 상록수림, 신흥리 해수욕장이 유명하다. 섬 사면의 해안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예부터 소안팔경(所安八景)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. 여기서 소안팔경은 대봉산의 달, 비동의 내전, 과목의 파도, 낙조의 돛단배, 목동의 피리소리, 가학산의 구름, 미라포구 앞 어선, 소나무 숲 등이다. 월항리의 개매기 체험, 진산리 해녀 물질, 선상 해맞이 행사, 미라리 바다낚시 등 다양한 어촌·해양관광자원도 산재해 있다.

섬 발전을 위한 주민 의지도 강하다. (사)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구심점이 돼 사료집, 소식지, 추모행사,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물론 ‘실버댄스팀’, 음악동아리 ‘따뜻한 손 밴드’ 등 주민 내부 모임도 활동적이다. 소안면 전체 15개 마을이 태극기 게양 운동을 벌이면서 ‘단합’도 잘 되는 편이다. 전남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브랜드 사업으로 ‘가고 싶은 섬’ 가꾸기 사업을 내놓자 지난해 9월 관련 주민 워크숍을 열고, 지난 1월에는 주민협의회 발대식을 갖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오랜 기간 누적된 주민 공동체의 결과다.

◇문화공간, 여행 프로그램,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 등 계획=소안도는 ‘가고 싶은 섬’ 가꾸기 사업의 기본 방향을 ‘항일운동의 역사를 문화로 이어가는 태극기 섬 소안도’로 잡았다. 섬의 스토리 자원, 섬 생활자원, 섬 생태자원, 섬 경관자원을 바탕으로, ‘소안 섬사랑 문화공간 조성’, ‘소안 나라사랑 여행 프로그램 운영’, ‘소안 주민섬사랑 공동체 관광 커뮤니티

비즈니스 활성화’ 등 3가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.

구체적인 사업으로는 365 태극기 문화거리 명소화, 주민참여 태극기 문화공간 가꾸기, 태극기 섬 문화학교 조성, 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, 섬 예술제 및 나라사랑 캠프 운영,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 등이다.

완도군은 “소안도의 잠재관광자원 및 콘텐츠, 섬을 가꾸고 보전해온 주민과 문화의 사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”이라며 “항일 역사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주민·관광객 참여형 섬 사랑·나라 사랑 문화 관광 섬으로 특화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강조했다.

주민협의회는 지난 1월 말 이러한 계획을 섬의 한 뒤 ‘내 집 앞 쓰레기 줍기’ 등 주민 실천 사항을 다 잡하기로 했다.

◇주민·관광객 모두 감소 추세 등 위험요소도=최대 6000명을 넘어섰던 섬 주민 수는 계속 감소하면서 2000년대 들어 3000명 선이 깨졌다. 또 2년 전인 2012년 소안도를 찾은 외부 관광객은 2만3597명으로, 지난 2008년 4만5297명에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. 소안도의 거주와 관광 측면의 매력이란만큼 쇠락하고 있는 반증인 셈이다. 또 오는 2020년까지 658억원을 들여 인근 노화도와 연결하는 3575m짜리 연도교가 설치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.

이러한 ‘위기’와 ‘기회’ 속에 섬 주민들이 들고 나온 것이 앞서 언급한 ‘태극기의 섬 소안도’다.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주제, 단편적인 구도를 가각,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잘 ‘어필’할 것인지가 사업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.

/윤희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특허방수
특허 제10-1097784호
특허 제10-0562035호
특허 제10-0548189호

대한건축사협회
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
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

방수가 2~3년만 가면 된다고요?
20년은 가는데!!
트라이슈머® 단열복합시트방수

시공과정

1. 시공전 / 단열베이스카펫시공
2. 단열베이스카펫 / 트라이슈머시트시공
3.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
4. 옥상 시공 후

결로·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~!
아트패션시트®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

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·곰팡이 방지는 기본!
겨울에는 따뜻~ 여름에는 시원~ 탁월한 냉·난방비 절감효과 (20~30%)
새집증후군 예방효과,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!

이파엘지의 특허공법!!

배란다 시공전 시공후

본사: 전속모델 헬렌트 이영후

(주)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
저탄소 녹색(Green)환경을 추구합니다.

[주]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

광주전남대리점
(062) 511-0444
H.P 010-6603-0405

목포대리점 T.(061) 284-0485
여수대리점 T.(061) 683-0485
순천대리점 T.(061) 726-0482
광양대리점 T.(061) 795-0485

www.IPALG.co.kr
또는 **이파엘지.kr**